

## - 이달의 질병 위생 대책 -

### 뉴캣슬병의 증상과 예방

#### 1. 뉴캣슬병 발생에 의한 상처

1976년도 초부터 산발적(散發的)으로 발생되어 오던 뉴캣슬병은 전국양계농가 중 커다란 상처를 직접 당한 양계장에서는 그나마 칠 정도의 악몽과 같았다.

양계의 화재마저는 아예 뉴캣슬병의 피해로 치부되는 경우가 당하였다. 여기에 뉴캣슬병은 양계장에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는 양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편(단아 뉴캣슬병), 그리고 양에게 감염된 계군은 그역할에 고백신의 전염병인 뉴캣슬병으로 인해 사망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뉴캣슬병은 물이나 화초, 계곡, 물고기 등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물과 화초와 같은 물체에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그나마 뉴캣슬병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빙하나 계곡에서 회복기에 있거나 또 회복기에서도 계속 보호(保護) 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양은 발생된 계군이 증상이 가려워 고하지 못할 수 있다. 일용발생하는 계군에 대해서는 계군 자체의 수의 비율(率)과 함께 험시 향시 등에 살피기 보자리고 있다.

가끔은 역항체가 암울 때 침범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뉴캣슬 바이러스가 속 존재하여 일상 생활 여전이 갖추어 발생하게 된다.

#### 뉴캣슬병이 발생한 계장의 조치

병이 일단 발생한 계장에서는 발병 초기에는 저항(抵抗)이나 가축방역 바

병계는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게 하여 매몰(埋沒)하거나 소각(燒却) 한다. 이 때 발생계군에서 나온 계분, 깔짚, 깃털등도 같이 처리한다.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발생한 계사내의 바이러스가 외부에 비산(飛散) 유출(流出) 되지않게 미리 소독약을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게 차분히 가라 앉게한 다음 실시한다.

그후 충분한 양의 소독약을 천정과 벽체, 양계 기구에 흡뻑 젖도록 뿌린다. 이때 사용하는 소독약은 2%가성소다 용액을 사용하되 물의 온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도가 뜨거울수록 좋다. 평사로서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석회를 뿐하고 깊이 파서 청결한 흙으로 객토를 하는 것이 좋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적합한 소독약을 산포한 후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 다시 소독약을 살포한다. 대부분의 경우 닭똥이나 깃, 비듬등의 유기물은 일반소독약과 접촉되므로 소독약의 효력을 감퇴 시키므로

- ① 소독약을 뿐려서 먼지발생을 방지.
- ② 내부 찌꺼기를 모아서 반출, 소각하고 닭똥 등을 물로서 깨끗하게 씻는다.
- ③ 다시 소독약을 살포하는 순서로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이와같은 소독작업은 계사내부에만 실시하지 않고 오염된 양계장의 전부분에 실시한다. 특히 격울철에 발생한 계군의 경우, 계분등이 발효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3개월 이상 계분에서 생존하므로 이점을 깊이 고려 해야 한다.

### 3. 일용발생한 양계장에

#### 병아리를 입추할 때.

산란계용 병아리를 입추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겸역을 실시한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소독 조치가 완료되면 가능한한 장기간 비워 두는 것이 좋으며, 일정한 기간동안 공백으로 두었던 계사를 다시 소독한 다음 뉴캣슬병에 감수성(感受性)이 있는 병아리(가능하면 SPF 병아리)를 시험적으로 입추하여 약 30~45일간 사육하여 뉴캣슬병이 발생되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입추한다. 이때 시험 육추시에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사에 대한 점역이 실시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실시하기가 여러가지 점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육추하여 완전한 면역이 형성된 닭을 들여 온다.

이때는 반드시 닭에대한 면역가를 측정하여 완전할 때 도입해야 한다.

병아리의 구입에 있어서도 반드시 부화장이나 종계장에 뉴캣슬병의 발생이 있었는지 또는 발생 계군에서 얼어진 종란에서 깐 병아리가 아닌지 확인 되어야한다. 이러한 병아리의 구입은 자기 양계장에 병을 끌어 들이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부화장에서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종계에서 염은 종란으로 부화할 때 부화율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onga 및 부화 중지란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병아리를 배부하게 되면 뉴캣슬병을 퍼뜨리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 삼가해야한다. 현행 법에 의하면 종계에 뉴캣슬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계로서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아리의 판매를 금지도록 되어 있다.

부로 일려 양계장에서는 가능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독이 완전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도 1~3개월간 입추를 금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뉴캣슬병의 처음 발생하는 곳이 부로 일려 양계장 중 뉴캣슬병 백신을 활용하지 않은 양계장임을 명확해야 하겠다.

#### 4. 뉴캣슬병이 발생하지 않은 양계장의 주의사항.

전국적으로 뉴캣슬병이 발생하였던 것을 상기해서 많은 주의가 요한다. 특히 그중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가. 어떤 사람이라도 방문객을 양계장 안에 안내하지 말것.

나. 모든 기구는 반드시 소독후 양계장에 반입한다. 그중에서

(1) 병아리 입추 때 병아리의 소독과 아울러 병아리 상자의 소독

(2) 난대(난좌) 및 계란수송에 사용되었던 것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소독(호르마린 훈증소독) 후 계사에 반입한다.

(3) 사료운반차, 계란수집차, 폐계 및 병계수송차의 양계장내의 출입을 금지 할 것.

다. 양계장내에서 병리해부 또는 도계를 절대 삼가 할것.

라. 종업원들의 타양계장 출입을 통제.

마. 호흡기 증세가 있는 닭은 즉시 전문 기관에 의뢰 정확한 병성감정을 받는다.

바. 뉴캣슬병 백신은 이미 권장한 방법에 의거 정확한 시술로 실시할 것.